

2005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축하 메시지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오신 충청남도와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변함없이 참가해 주신 일본 선수단 여러분께도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생활체육은 이제 자연스런 일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확산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즐거움을 넘어 참여해서 즐기는 생활체육의 혜택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과 삶의 활력을 지켜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의 화목, 직장이나 지역의 단합,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생활체육 진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전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간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전의 개막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